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2024년에 보다 나은 경제정보와 세미나를 위해 아래 간단할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감 12월 1일(금)**

설문 조사 참여하기

#### [미국 경제]

- Bloomberg: 옐런 재무장관, “인플레 관리 상당한 진전 보여”
- WSJ: 연착륙 불러일으키는 숨은 영웅은 공급
- Bloomberg: 연준 관리들 경제 파악 위해 현장 방문...”경제 둔화”

#### [미국 금융]

- Bloomberg: 씨티 그룹, 구조조정으로 3백명 이상 고위 메니저들 감축

#### [오피스]

- WSJ: 빌딩 사무실 건물주, 더이상 대출이 힘들다

#### [자동차 파업]

- CNN Business: UAW, 자동차 파업 끝내다... 최종 노사 합의안 투표 타결

#### [에너지]

- Bloomberg: 주요 원유 수출국 UAE, 쿼터 변경으로 내년 생산량 확대
- WSJ: 대형 석탄생산사 Glencore, 석탄 사용 중단 계획

#### [기후]

- CNBC: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위 1% 소득자가 50억명과 맞먹다

#### [글로벌 경제]

- WSJ: 미 전기차 보조금, 글로벌 자동차 교역 붐 일으키다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아마존, 무료 AI 교육 프로그램 도입... AI 인재 확보 위해
- TechCrunch: MS, “새로운 AI 연구팀에 Altman과 Brockman 합류할 것”
- CNBC: 마스터카드, 암호화폐 범죄 막기 위해 AI 관련사와 협력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Yellen Says US Making ‘Considerable Progress’ Reducing Inflation**

#### **옐런 재무장관, “인플레 관리 상당한 진전 보여”**

- 옐런 연방 재무장관은 노동 시장이 강한 상황에서서 미 인플레를 둔화시키는데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연준의 금리를 높이면서 10월 미 소비자물가지수가 2022년 최고치였던 9%에서 3.2%로 하락했다.

- 그는 물론 미국인들은 예전에 겪지 못한 고물가를 경험하고 있지만 강한 경제와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가 둔화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 **WSJ: The Hidden Hero Fueling Soft-Landing Hopes: A Boost in Supply** 연착륙 불러일으키는 숨은 영웅은 공급

- 요지: 강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증가와 생산성 향상이 인플레이를 낮추어 연준의 금리 인상 압박이 완화되고 있다.
-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은 고물가로 이어지는 강한 성장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번달에 중요한 변화의 신호를 보냈다.
- 그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 병목 현상이 완화되고 이민과 노동력의 증가와, 근로자가 생산하는 생산성의 향상 덕분에 미국 경제의 성장 속도 제한이 일시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률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WSJ 기사

### **Bloomberg: Fed Increasingly Turning to Anecdotes to Gauge Economy** 연준 관리들 경제 파악 위해 현장 방문..."경제 둔화"

- 연준은 공식 데이터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업체들의 현장 방문을 통해 미국 경제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한다.
- 이같은 현장 방문에 따르면 미국 경기가 3분기에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는 공식 데이터와는 달리 미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연준 정책 결정자들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또한 소규모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 **[미국 금융]**

### **Bloomberg: Citigroup Cuts Over 300 Senior Manager Roles in Latest Restructuring** 씨티 그룹, 구조조정으로 3백명 이상 고위 매니저들 감축

- 이같은 감축은 CEO Jane Fraser의 은행 구조 단순화(보다 빠른 의사 결정 속도) 노력에 따른 것이다. 이 직급은 이 은행 경영팀의 두단계 낮은 단계 직급해 해당되는데 해당 단계의 대략 10% 정도의 인력이다.

- 이 회사는 “이같은 결정은 어렵과 중대한 결정 이지만, 회사의 구조를 우리의 전략에 맞추고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내년까지 이같은 쫓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 [오피스]

#### **WSJ: Office Landlords Can't Get a Loan Anymore** 빌딩 사무실 건물주, 더이상 대출이 힘들다

- 요지: 사무실 임대 건물주들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더 많은 현금을 투입하거나 채무 불이행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 최근 한마디로 오피스 부문에서 신용 경색이 가속화되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더 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Moody's Analytics에 따르면 올해 9개월동안 만기가 도래한 유동화 사무실 모기지 3건중에 한건만이 9월 말까지 상환되었다.

WSJ 기사

### [자동차 파업]

#### **CNN Business: UAW members at Ford and Stellantis approve contract** UAW, 자동차 파업 끝내다... 최종 노사 합의안 투표 타결

- 포드와 스텔란티스의 전미 자동차노조원(UAW)들이 새로운 노사 협의를 GM의 노조원들보다 더 큰 차이로 찬성했다. 이는 자동차 파업이 일반 노조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끝냈다.
- 지난 토요일에 공지된 UAW 최종 비준 투표 결과에 따르면, 2주 동안 진행된 이 투표 과정에서 포드와 스텔란티스의 노조는 69%의 찬성률을 나타냈지만, GM의 경우 55%의 투표 찬성률을 나타냈다.
- 일부 노조원들은 잠정 합의안이 타결되던 몇 주 전부터 이미 포드, 스텔란티스 그리고 GM의 공장과 관련 시설에 복귀했었다.
- 그러나, 세 기업에서 새로운 노사 합의안이 타결됐음에도,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는 남아있다. UAW는 12곳의 GM 공장과 시설의 노조원들이 투표에 반대했음을 보고했다.

CNN Business 기사

## [에너지]

**Bloomberg: Key OPEC Member UAE Poised for 2024 Output Boost on Quota Change****주요 원유 수출국 UAE, 쿼터 변경으로 내년 생산량 확대**

- 석유수출국기구 동맹국들이 더 많은 원유를 생산 할수 있도록 합의한 상태에서 주요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는 내년 1월에 생산량 목표를 하루 3백7만5천 배럴로 늘릴 예정이며 이는 지난달보다 하루 약 13만5천배럴을 더 생산하는 것이다.
- 이 국가는 오랜 생산 제한으로 최근 수년간 추가 생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올해 6월에 열린 회의에서 양보를 얻어내었다.

Bloomberg 기사

**WSJ: This Coal Giant Now Wants to Get Out of Coal****대형 석탄생산사 Glencore, 석탄 사용 중단 계획**

- 대규모 석탄 사업 운영 업체인 Glencore는 이 사업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 회사는 최근 수십억달러 규모의 석탄 광산 매각에 합의했는데 이는 수년만에 가장 큰 전략적인 사업 변경이다.
- 대신에 전기 자동차 배터리와 다른 친환경 기술에 필요한 금속의 주요 공급 업체로서 입지를 강화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WSJ 기사

## [기후]

**CNBC: Carbon emissions of richest 1% equal to those of poorest 66%, Oxfam report finds****이산화탄소 배출량, 상위 1% 소득자가 50억명과 맞먹다**

- 오늘 월요일 Oxfam에 의해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의 부자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6%의 빈곤층에 해당하는 50억명의 사람의 배출량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 소득 상위 1%는 7천7백만명에 해당되며 최저 기준 소득은 연간 14만 달러이며, 평균 소득은 31만달러다.
- 또한, 스톡홀름 환경 연구소가 실시한 The charity 분석에 따르면 상위 10%의 자산가들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0%를, 하위 50%의 사람들이 단지 8%를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 CNBC 기사

**[글로벌 경제]****WSJ: U.S. Subsidies Fuel Boom in Global Auto Trade**  
**미 전기차 보조금, 글로벌 자동차 교역 붐 일으키다**

-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리점들이 재고를 보충하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자동차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 자동차 수출 증가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산업에서 수출이 감소하는 것과 대조된다.
- 이런 추세는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서구의 노력이 세계 무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 한국과 일본의 경우 부분적으로 미국의 전기차 세제 혜택으로 인해 전기차 수출량이 증가해 왔으며, 중국 또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자국내 BYD와 테슬라의 수출량 덕분에 일본을 제치고 가장 큰 자동차 수출국이 되었다.

##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WSJ: Amazon Launches Free AI Classes in Bid to Win Talent Arms Race**  
**아마존, 무료 AI 교육 프로그램 도입... AI 인재 확보 위해**

- 아마존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다른 기업 간의 인공지능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얻기 위해, 자사의 직원들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AI Ready”라고 불리는 아마존의 새로운 프로그램은 2025년까지 최신 AI 관련 기술들을 2백 명의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은 어떻게 생성형 AI를 이용할 수 있는지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아마존은 라이벌 기업 간의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AI 인재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 WSJ 기사

**TechCrunch: Microsoft hires ex-OpenAI leaders Altman and Brockman to lead new AI group**  
**MS, “새로운 AI 연구팀에 Altman과 Brockman 합류할 것”**

-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Satya Nadella가 오늘 월요일, MS가 OpenAI의 공동 창업자인 Sam Altman과 Greg Brockman을 고용하고, 새로운 최신

AI 연구팀을 이끌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주 Brock man을 포함한 많은 OpenAI 직원은 이 기업에 대한 항의로 퇴사했다.
- 업계의 많은 기업 경영자들과 투자자들은 OpenAI의 결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 Altman의 리더십이 없다면, OpenAI가 현재의 기술 발전에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 MS의 이번 고용 소식은 이 기업의 경쟁적 우위를 강화하고, 월가의 긍정적인 전망을 강화할 것이다.

TechCrunch 기사

### **CNBC: Mastercard doubles down on effort to detect and tackle crypto fraud with AI tie-up**

**마스터카드, 암호화폐 범죄 막기 위해 AI 관련사와 협력**

- 오늘 마스터카드는 CNBC에 암호화폐 관련 사기 범죄 감시와 차단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기술 규정 플랫폼 기업인 Feedzai와 협력한다고 말했다.
- 이를 통해, 마스터카드는 Feedzai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Feedzai는 마스터카드가 6천 건이 넘는 암호화폐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이용하던 CipherTrace Armade platform과 통합 운영된다.
- 마스터카드의 이런 조치는 암호화폐 분야 특히, 사기 및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속에 대대적인 움직임을 나타낸다.

CNBC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연착륙 뒷받침하는 공급 증가...노동력·생산성 덕에 인플레이 억제**

**WSJ "강한 성장에도 인플레이 낮추고 연준 금리인상 압력도 완화" 파월, "추세 이하 성장"에서 "잠재력 이하 성장"으로 미묘한 변화**

미국 경제가 연착륙 희망을 갖게 된 이면에는 노동시장 참여자가 늘고 생산성이 향상된 데 따른 공급 측면의 증가가 톡톡히 역할을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강한 성장세가 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급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결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압력도 완화했다는 것이다.

23. 11. 20. 오후 1:11

Constant Contact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달 더 강력한 성장이 높은 물가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꼭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중요한 변화를 예고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